

행복한 배화가족

함께 꿈꾸며 즐겁게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



힘 만큼의 인생 vs 기도만큼의 역사

사도행전 12장에 등장하는 야고보 처형은 성경에 기록된 유일한 사도의 죽음이다. 교회는 이를 위해 기도한다. 힘의 통치 앞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했다. 기독교는 나약함을 지향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겸손할 뿐이다.

그들의 기도는 즉시 응답받았다. 헤롯은 자기만한 세상을 살았지만 성도는 기도만큼의 역사를 경험했다. 헤롯은 실패했고 성도가 승리했다!

그들의 기도는 헤롯보다 큰 힘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었다. 주먹을 쓰는 사람보다 기도하는 사람이 더 약하다고 누가 말할 수 있는가! -지난 금요기도회 말씀 중

지난 금요일, 유치부 예배실의 난방공사를 위해 성도들이 함께 모여 바닥청소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예배안내

주일예배 : 주일오전 11시 캠펠홀
금요기도회 : 오후8시 기도실

섬기는 사람들

목 사 김영석 김은철
전 도 사 송민혜 (목회 및 심방)
송민천 (예배 및 교육)
간 사 박진성 (행정사역)
백수산나 (유아사역)
강영건 (찬양사역)

남선교회장 허경식 여선교회장 이은미
선교사역팀 김재홍 양육사역팀 한호철
재 무 김용석 새 가 족 함은혜
교 회 학 교 김미소 조 신 이주혜

· 지난주 통계

인원	85명
헌금	십 일 조 김용석 유재연 서민욱 이아름 감사헌금 김기택 김승주 서광희 이병홍 무 명 주일헌금 강영건 김백준 김승주 김영서 김영석 홍병진 김예현 김은철 김재홍 김선민 김택윤 김택현 노준영 박세연 박소영 서하랑 송민천 김미소 송윤경 윤서진 배성경 이기순 이동근 이은미 정우석 태미선 조 신 조진철 최명성 최영광 최정용 추세영 태미선 허경식 함은혜 유아부 무 명 목적헌금 성임숙

· 대표기도

11.18	이아름
11.25	유재연
12.2	조진영
12.9	추세영

배화교회

배화여자대학교 부속 대학교회

주보 제 2018-45호

2018.11.11

성령강림 후 제 25주
주일오전 11시 캠펠홀

예배 Worship Service

* 예배 전에 조금 일찍 오시면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입례송 * 찬송가 2장 <찬양 성부 성자 성령> *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예배로의 부름 * 다같이

인도자 :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회 중 :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며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다함께 :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사도신경 * 다같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 다같이 (인도: 강영건 간사)

1. 우리가 꿈꾸는 나라
2.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대표기도 이은미 집사

기도송 다같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오 주여 일하소서 주의 뜻 이루소서 아-멘 아-멘

교회소식 및 아이들 축복기도 김영석 목사

봉헌 및 찬양

* 현금위원 : 김용석, 한호철

1.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며 우리 맘에 미움 없게하시고 겸손한 마음 주옵소서
2. 부모님께 항상 감사하고 남편을 존경 아내를 사랑 자녀에게 말씀 가르치는 주님의 가정 삼옵소서
3. 진심으로 서로 위로하고 기도함으로 하나가 되고 주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봉헌기도 다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신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도 받아주십시오. 우리가 오늘 성별하여 하나님께 물질을 드린 것처럼, 매일의 삶도 하나님이 받으실만한 아름답고 사랑스러우며 칭찬받을 만한 인생 되도록 복을 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가짐이 흐트러지지 않게하시고, 가만히 귀 기울여 하나님의 뜻을 청종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인도해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봉독 * 마태복음 13장 24-33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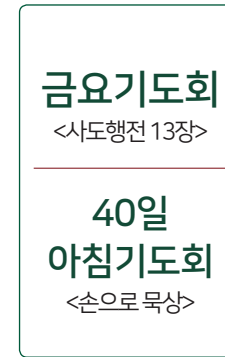
24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25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26 썩어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27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28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29 주인이 이르되 가만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30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 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31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32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33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 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설교 김영석 목사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이들에게

파송찬양 및 축도* <주님의 시간에>

교회소식 Church Announcement



추수감사절준비 다음 주일 속회에서는 성경공부 대신 '감사나눔'과 '찬양연습'모임을 갖습니다. 시간을 들여 추수감사절감사카드를 작성하시면서, 한 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실 난방시설 성임숙 사모님의 봉헌으로 필운관 기도실(에덴유치부 예배실)에 난방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배식 및 정리 오늘은 소년부, 다음 주일은 1속(한정식 속)입니다.

은혜나눔 TMG (too much grace)

성도들이 지난 속회모임에서 나누었던 '넘치는 은혜'를 소개합니다. <3속 - 일상 속>

박진성: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고 형통한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다. 우리 눈에 다향은 실패하고 정체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눈에 비춰진 다향은 그 중심이 더욱 견고해지며 날마다 성장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아름: 다향이 억울하고 힘든 상황들을 만나보지 못했다면, 아둘람에 찾아온 약자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가 만나는 고난과 위기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위로하며 돕는 일에 쓰임 받는다.

유재연: 골리앗을 무너뜨린 소년, 다향에게는 '호기'가 느껴진다. 그러나 지금의 다향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신뢰, 다른 사람을 품는 포용성의 깊은 내공이 느껴진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훈련은 고되지만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김용석: 내가 회사생활을 통해 훈련받은 것은 "함께 사는 법"이다. 회사에 처음 들어왔을 때 나는 거창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돌아보니, 하나님은 회사 생활을 통해 내가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을 훈련시켜셨다.

지금 당장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더욱 신중해지고, 겸손해질 수 있다.